

‘국제공항의 성장, 하늘 길이 활짝’,

1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한-타이완 항공 조인식(1952)



서울-홍콩간 국제노선 탑승 수속(1957)



김포국제공항 종합청사 개관식(1960)



태평양횡단 여객편 개설 취항식(1972)



대한항공 점보제트기 보잉747 취항식(1973)

국가기록원은 공항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1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국제공항의 성장, 하늘 길이 활짝’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월 23일(목)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동영상 15건, 사진 15건 등 총 30건으로, 1950~90년대 국제공항의 확장과 개항, 국제노선 취항 등 국제공항의 발전과정을 담고 있다.

- 우리나라 항공(1952), 새로 단장된 김포공항(1960), 대한항공 국제선 취항(1968), 태평양횡단 미주노선 첫 취항(1973), 제주공항 신청사 준공(1983), 영종도 신공항(1990) 등 동영상 15건
- 서울-홍콩간 탑승 수속(1957), 여의도공항(1959), 점보제트기 보잉747 취항식(1973), 김포공항 국제선 제1청사 준공(1980), 청주국제공항 개항(1997) 등 사진 15건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은 국제항공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시기로, 국제공항이 새로 지정되고 국제노선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1954년 이후 국제공항으로 이용되던 여의도공항 대신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된 김포공항은 1960년 신청사를 개관하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갔다.

한편, 하늘 길도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1952년 한국-타이완 간 항공협정을 맺는 모습, 1954년 최초의 국제 정기항로인 ‘서울~타이베이~홍콩 노선’이 개설되어 지금은 없어진 여의도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국제선 취항이 늘어나고 항공기가 대형화되었다. 1964년에는 일본 노선이, 1969년에는 동남아 노선이, 1972년에는 태평양횡단 미주 노선이, 1976년에는 취리히 노선이 새로 취항하고, 1976년에는 김해국제공항이 개항하는 등 국제수준의 공항시설도 확충해 나갔다. 항공기도 대형화되어 1969년에 보잉707형·보잉720형을, 1973년에 점보제트기 보잉747기 등이 도입되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 점보기 보유국이 되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서울올림픽, 해외여행 자율화 등으로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현대식 국제공항이 속속 개항하였다. 1980년과 1988년에 각각 김포공항 국제선 제1청사와 제2청사가, 1983년에 제주국제공항 신청사가, 1997년에 청주국제공항이 차례로 준공되는 등 여객처리 능력이 늘어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급증하는 국제항공 수요와 김포공항의 포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에 수도권 신공항건설 계획이 발표되었고, 1992년에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시작되었다.

‘기록으로 보는 교복의 변천’,

2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1950년대 교복(1958) : 여학생 교복의 전형인 윙칼라 블라우스와 플레어스커트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1960년대 교복(1966) : 바지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1970년대 교복(1977) : 중학교 여학생 교복 모습

국가기록원은 상급학교 진학과 새학년 진급 준비기간인 2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교복의 변천’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월 14일(금)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문서 2건, 동영상 5건, 사진 14건 등 총 21건으로, 1950~90년대 중·고등학교 교복의 변천과정을 담고 있다.

- 중·고등학교 복장 및 두발제한 개선안(1981), 고교생 교복자율화에 따른 청소년 건전 의식 계도 대책(1983) 등 문서 2건
- 중·고등학교 교복·머리형 자율화(1982), 교복세대 졸업식(1983), 교복자율화(1983) 등 동영상 5건
- 경서중학교 교육상황(1958), 제12회 과학전람회 시상식(1966), 송문고등학교 물리실험(1977), 사진전을 관람하는 여학생들(1997) 등 사진 14건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중·고등학교는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였다. 특히, 1968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에 따른 평준화정책으로 중학생 교복 디자인이 시·도별로 통일되기 시작했다.

여학생 교복은 여름에는 윙칼라 블라우스에 감색이나 검정색 플레어스커트를, 겨울에는 감색이나 검정색 상·하의를 주로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1966년 과학전람회 시상식에 참석한 여학생의 바지교복이 이채롭다.

남학생 교복은 학교별로 하복과 동복의 색을 구분하여 착용했는데, 겨울에는 검정색 스탠드칼라, 여름에는 화색 교복을 주로 입었다. 남녀 학생의 교복 디자인과 색상이 대동소이했던 것을 당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1981년 학생들의 개성과 미적 품성 함양을 위해 교복자율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학생들은 교복에서 벗어나 자유복을 입게 되었다.

* 실제 교복이 자율화된 것은 1983년부터였다. 이는 이미 만들어 놓은 교복과 옷감을 소모해야 하는 교복 생산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1981년 중·고등학교 교복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통령문서, 1982년 교복자율화 시범학교 학생들의 자유복 차림의 등교 모습과 1983년 마지막 교복세대 졸업식 모습 등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교복자율화로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 복장의 사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사회캠페인이 전개되기도 했다. 신문·방송·잡지를 활용하고, 홍보영화·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의식을 계도하고자 했던 문서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억 속으로 사라질 것만 같던 교복은 청소년들의 탈선,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1985년 교복자율화 보완조치와 함께 다시 부활하였다. 학교별로 교복 착용을 자율적으로 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복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교복이 등장하였다.

『대통령의 새해맞이』,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대통령의 새해맞이』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설날을 맞아 1월 『기록으로 보는 대통령』 주제를 ‘대통령의 새해맞이’로 정하고 역대 대통령의 다양한 새해 모습을 담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포털(<http://www.pa.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역대 대통령들의 새해 맞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①국민과 함께 하는 새해, ②대통령의 세배, ③새해다짐(신년 회화), ④ 신년 설 선물 등 관련 사진기록 40건, 문서기록 1건 등 총 41건이다.

- 역대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새해 동정사진(1953~2012) 10건
- 역대 대통령의 세배 관련사진(1963~2007) 11건
- 역대 대통령의 신년회화 관련사진(1957~2012) 7건
- 역대 대통령 신년 하사품 사진 및 감사편지(1978~1983) 등 7건
- 역대 대통령의 설 선물 관련사진(2006~2012) 6건

역대 대통령은 전통 명절인 설을 어떻게 보냈을까? 대통령의 설날 아침은 가족과 함께 모처럼만에 오붓한 한 때를 보내는 한편, 소외계층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낸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해’ 관련 기록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아원 방문을 비롯해 소외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역대 대통령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다.

‘대통령의 세배’관련 기록물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새해 아침 다양한 세배 모습을 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해 아침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참석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했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설빔을 차려입고 가족들의 세배를 받으며 단란한 한 때를 보내는 사진 기록이 공개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맞아 고향 거제를 방문해 부모님께 세배를 하고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관저에서 신년세배를 받으며 세배객들과 훈훈한 새해 덕담을 나누는 기록이 남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첫날 수석 보좌관, 비서관 등 참모진들에게 새해인사를 받고 세뱃돈을 나눠줬는데, 이날 세뱃돈은 1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새해다짐’ 관련 기록물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한 해 다짐과 국정 철학을 담은 신년회화를 살펴볼 수 있다.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나라가 부유하고 병력이 강하면, 오랜 세월에 자유를 누린다.”는 뜻의 『국부병강(國富兵強) 영세자유(永世自由)』를,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



전두환 대통령 가족 신정세배(1986)



노무현 대통령, 수석보좌관 신년인사회 세배(2007)

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은 “스스로 돕고,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를 지키자.”는 뜻의 『자조, 자립, 자위』라는 한글 회화를 선택했다.

1998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당면한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뜻을 담아 각각 『제심합력(齊心合力)』과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회화를 썼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 큰일에 임하여 엄중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잘 성사시킨다.”는 뜻의 『임사이구(臨事而懼)』를 회화로 남겼다.

‘대통령의 신년 설 선물’관련 기록물에서는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1970~80년대 설 선물은 식료품부터 내복, 방한복까지 다양한데, 받는 이들의 직업과 사정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전국 8도의 지역 특산품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전달하는 것으로 설 선물 문화가 바뀌었다.

1978년 해외 취업근로자들에게 전달된 박정희 대통령의 선물은 갯잎 통조림, 고추장, 김치 등으로, 오랜 해외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고국의 맛으로 위로하고자 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당시 하사품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간호사들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는 외국 생활의 애환과 감사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신문 집배원과 광부에게 방한외투를 지급했는데, 외투 오른쪽 속주머니 윗부분에 대통령 하사품임을 나타내는 ‘대통령각하 하사품’이라는 표시가 있어 당시 시대상을 보여준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2005)과 관련해, 당시 쌀 시장 개방에 시름이 많았던 농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국 8도 명품쌀과 쌀로 만든 전통 민속주를 설 선물로 선정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사회 어려운 계층에게 훈훈한 설 명절의 온정을 나누는다는 의미와 함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에 도움을 주고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떡국과 참기름, 참깨 등으로 구성된 설 선물을 전달했다.

김영삼 대통령신년회화(1998)
제심합력(齊心合力) : 마음을 하나로 하고 힘을 합친다.김대중 대통령 신년회화(2000)
새천년 새희망(새千年 새希望) : 2000년 뉴 밀레니엄을 맞아 쓴 신년회화

『대통령과 함께한 특별한 졸업식』,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대통령과 함께한 특별한 졸업식』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졸업시즌을 맞아 2월 『기록으로 보는 대통령』 주제를 ‘대통령과 함께한 특별한 졸업식’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기록물은 역대 대통령이 각종 졸업식에 참석하여 사회 진출을 앞둔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기록 22건과 관련 문서기록 1건 등 총 23건이다.

- 대통령, 아주 특별한 졸업생을 만나다.
 - ‘자랑스러운 대학 졸업생’ 초청 오찬(1999), 제1회 마이스터고 졸업식(2013) 등 2건
- 대통령, 우리나라를 이끌 예비 사회인을 축하하다.
 - 서울대학교 졸업식(1962 · 1974), 이화여대 졸업식(1995), KAIST 졸업식(2004) 등 4건
- 대통령, 초임 장교와 초급 간부들을 격려하다.
 - 육군사관학교 · 공군사관학교 졸업식(1955 · 1980), 경찰대학 졸업식(1985 · 1988) 등 4건
- 여사님, 배움을 향한 열정에 찬사를 보내다.
 - ‘어머니 대학’ 졸업생 청와대 초청 오찬(1971), 숙명여대 가상교육센터 사이버 졸업식(2000), 성지중 · 고등학교 졸업식(2006) 등 3건
- 역대 대통령의 졸업식 참석, 졸업생 초청 오찬 등 관련사진 10건



이명박 대통령 제1기 마이스터고 졸업식 참석(2013)



김대중 대통령 서울산업대학교 졸업식 참석(2002)



윤보선 대통령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하연설(1962)



박정희 대통령 서울대학교 졸업식 참석(1974)



김영삼 대통령 이화여대 졸업생 격려(1995)



노무현 대통령 KAIST 졸업식 졸업식 참석(2004)



이승만 대통령 4년제 육군사관학교 첫 졸업생 격려(1955)



최규하 대통령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1980)



전두환 대통령 제1기 경찰대학 졸업식 참석(1985)



노태우 대통령 경찰대학 졸업식 참석(1988)

김대중 대통령은 각 대학의 성적 우수졸업생들을 초청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졸업생 등 ‘자랑스러운 대학 졸업생’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1962년 제16회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사, 석 · 박사 졸업생들을 격려하면서 사회의 중추적 인물이 되어 우수한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제28회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추진역량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이화여대 졸업식에 참석해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여성상과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 역설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대학교나 3군사관학교가 아닌 사립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공계 시대’, ‘기술로 승부하는 시대’를 강조하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이공계 우대 정책에 대해서 역설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의 초석을 양성하는 3군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의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군 장교와 경찰간부로서 영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5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이는 육군사관학교가 1951년 4년제 정규사관학교로 다시 개교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졸업식이었다. 흥미롭게도 이날 졸업식의 주인공에는 훗날 제11 · 12대와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제28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기습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경계태세를 당부하고 공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5년 제1기 경찰대학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첫 졸업생들을 격려했으며, 경찰의 현대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수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태우 대통령 또한 1988년 경찰대학 제4기 졸업식에 참석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경찰의 역할과 국민에게 겸허한 자세로 임하는 경찰의 모습을 강조했다.

이밖에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 또한, 대통령의 발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평생교육의 의미를 실천하는 주인공들을 만나 배움을 향한 끝없는 열정을 격려하기도 했다.

권양숙 여사는 평생교육시설인 ‘성지중 · 고등학교’의 2006년 졸업식에 참석해 만학의 꿈을 이룬 어르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고학생들을 격려했다.

이희호 여사는 국내 최초의 가상교육지원센터인 숙명여대 가상교육센터의 2000년 사이버 졸업식에서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큰 성과를 이뤄낸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육영수 여사는 1971년 대한어머니회 주관으로 개설된 『어머니 대학』 졸업생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평생교육을 몸소 실천하는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다과회를 가졌다.

국가기록원, 『3·1운동 판결문』 자료집 발간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3·1운동)』

국가기록원은 3·1운동으로 재판받은 55건(220명)을 선별하여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3·1운동 1)』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판결문(2,673권)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경기, 강원, 충청도 지역의 3·1운동 판결문을 선별한 것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수록하였다. 그간 판결문 원문은 한문과 일본어로 쓰여져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각 지역 3·1운동 연구와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가 기록한 220명의 판결문은 각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3·1운동의 다양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강원도 횡성에서 1919년 3월 27일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신재근은 당시 64세였다. 그는 장도훈 등과 태극기 1폭과 5촌(寸) 크기의 종이로 만든 태극기 20매와 독립선언서 40매를 시장에 모인 300여 명에게 나누어주고 군청과 함께 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그는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충남 천안 광명학교 여학생 민옥금·한이순·황금순 등은 3월 20일 천안 입장면 양대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웃한 병천의 유관순열사의 봉기보다 십여 일 앞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3월 20일 오전 10시 무렵, 이들은 학생 약 80명을 인솔하여 양대리 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다. 민옥금은 17세, 한이순과 황금순은 18세였는데 모두 징역 1년에 처해졌다.

이은선은 3월 24일 인천 계양 장기리 시장에서 심혁성·임춘성 등이 이끄는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 그는 300여 명이 모인 장기리 황어장터에서 체포된 심혁성을 구하려다 일제 순사의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순국한 잘 ‘알려지지 않은 열사’이다.

또한,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참여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은 각 지방으로 파급, 3월 하순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주로 서울에서 선포된 선언서나 그 취지에 적극 동조하며 장이 열리는 시장에서, 고개에서, 산봉우리 등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일제의 식민통치 기관인 면사무소, 군청, 주재소, 우편소 등을 대상으로 만세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3·1운동 참여층은 연령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양하다. 16세 학생부터 70세 노인까지, 교사와 학생은 물론 농부, 인력거꾼, 잡화상, 이발사, 승려, 낚싯पाल이, 수공업자, 의사, 시계수리공, 아재형상 등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대한 사람’ 모두가 3·1운동의 참여주체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자료집 발간과 더불어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을 선별하여 홈페이지 ‘독립운동관련 컬렉션’에서 공개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명은 물론 지역별·직명별로 검색하여 독립운동관련 2만 4천여 명의 판결문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원문 공개



유관순 열사 일가족 순국 사례 :
“3·1독립운동 만세로 인하여 왜병에게 피검되어 옥중에서 타살당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원 제암리 집단학살 사례 :
순국 장소, 순국일시, 순국 상황 등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3·1운동 95주년을 맞이하여 1953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성한 3·1운동시 피살자 관련 명부에 등재된 645명에 대한 원문 이미지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3·1운동시 피살자명부』 원본은 작년 11월 국가기록원이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견해 일부 공개한 바 있다.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3·1운동시 피살자명부』 사본을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번에는 명부를 분석해 원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명부는 제109회 국무회의(1952.12.15.)에서 이승만 前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작성하였고, 『3·1 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 외에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도 포함되어 있다.

명부를 분석한 결과, 등재된 인원은 당초 630명으로 알려졌으나,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15명 늘어난 64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다른 명부에 3·1운동 피살자가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도, 충남, 충북, 강원, 전남의 순이며 명부에 등재된 주소지가 북한이나 만주 등 국외 지역인 경우도 있었다.

3·1운동 피살자 명부에는 3·1운동으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 여사 등 일가족이 사망한 사실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관순 열사는 “3·1독립운동 만세로 인하여 왜병에게 피검되어 옥중에서 타살당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이씨로 기록)에 대해서는 “3·1독립운동 만세로 인하여 총살당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대표적 집단학살로 잘 알려져 있는 수원 제암리 집단학살 피해자인 안정옥을 비롯해 안유순·안경순 등도 기록되어 있다. 수원 제암리 사건이란 1919년 3·1운동이 발생하자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일본 경찰은 같은 해 4월 15일 제암리 주민들을 마을교회로 모이게 한 후 집단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수원 제암리 사건은 3·1운동 당시 일제의 대표적 학살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명부의 순국상황에는 총살부터 옥사, 칼로 타살/도살, 구타사망, 고문치사 등 피살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참혹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명부에는 3·1운동 당시 피살자와 함께 3·1운동에 가담하고 이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송내호·송기호 형제는 3·1운동뿐만 아니라 신간회 등을 통해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대표적 독립운동가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원본은 이미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동안 3·1운동과 관련하여 발견된 적이 없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읍·면 별로 성명, 나이, 주소는 물론 순국일시, 순국장소, 순국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향후 독립유공자 선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남 옥천군 아원시장 3·1운동 관련자인
공재익·조기시·최덕용·이금봉의 판결문 일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대형보존서고 및 친환경 에너지 절약 사례집』 발간



17개 해외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친환경 사례를 수록한 자료기술·복원 기술 자료집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 보존·복원 기술 자료집 제5권 '해외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대형보존서고 및 친환경 에너지 절약 사례집'을 발간했다.

국내 도서관 및 관련 기관에 자료보존 정보 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해 발간된 이번 자료집은 영국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국립기록보존소, 미국 유타대학교 매리어트도서관 등 총 17개 해외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친환경 에너지 절약 사례가 담겨있다.

미국 이미지연구성연구소(P)는 예일대학교 도서관 등과 함께 밤과 같이 비어있는 시간에 공조기 가동을 일시 멈추고도 보존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3년간의 실험 연구과정과 방법, 결과(약 33%의 에너지 절약 효과) 등을 소개한다. 서고환경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영국기록보존소가 추진한 각 서고별 서고 기후지도와 자료 위치가 나타나는 서고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는 친환경 지붕, 초단열 벽, 고효율 창문, 에너지 회복 환풍기, 즉석 온수 시스템, LED 조명 등 친환경 설계를 반영하여 질산염유소 필름 보존서고를 신축했다. 프랑스령 세인트마틴섬의 세인트마틴 미디어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는 무역풍에 따른 자연환기와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 등 열대기후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 도서관을 건축했다.

이뿐 아니라 영국 국립도서관의 자동화 창고형 대형서고인 '31' 보존서고, 영국영화협회의 열용량이 높은 구조로 설계되어 에너지 투입 없이도 72시간 동안 영하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전용서고 등 최근 도서관 신축서고의 주요 추세인 대형 창고형 밀집 서고도 자세히 소개한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IFLA PAC 한국센터는 '해외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대형보존서고 및 친환경 에너지 절약 사례집'을 전국 200여개 주요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IFLA PAC 한국센터(<http://www.nl.go.kr/iflapac>) 홈페이지 발간자료 메뉴에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 『직지심체요절』 복원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며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이 고인쇄박물관에 의해 복원되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따르면 직지 복원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하권 1장~39장까지 활자 복원은 물론 조판까지 거의 마무리되었다. 특히 1장은 프랑스에도 남아있지 않아 원본보다 완결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 고인쇄박물관 측의 설명이다. 목판본만 남아 있는 상권 1장~6장도 이 기간 복원됐다. 상권 역시 총 39장이며 2015년 말쯤 복원이 끝날 예정이다.

고인쇄박물관 황정하 학예연구실장은 "프랑스에는 현재 하권 2장~39장까지 보존돼 있다"며 "금속활자본 진본으로도 남아있지 않은 하권 1장까지 재현해낸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복원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직지 복원의 주인공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임인호 금속활자장이다. 그는 우선 프랑스에 있는 직지 하권 2장~39장까지는 영인본을 토대로 제작했으며, 금속활자본 직지 진본이 없는 하권 1장과 상권은 목판본을 참고했다.

글자는 하권에서 최대한 뽑아냈고, 직지 금속활자본과 서체가 거의 같으며 금속활자로 찍은 자비도량참법집해 반각본에서도 끌어왔다. 여기에도 없는 글자는 금속활자본 하권의 글자에서 하나하나 획을 따 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제작 방법은 애초 직지 제작에 사용됐다고 추정되는 밀랍주조법을 사용했다. 목판 복원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김각한 각자장 등이 맡고 있으며 경북대 남권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고인쇄박물관은 2013년 9월에 개관한 금속활자주조전수관에서 1월 22일 복원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고 복원이 마무리 된 직지 하권과 상권 일부를 공개하였다. 고인쇄박물관은 2015년 말 이후 모든 복원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하권을 모두 엮어 한 권의 책자로 인쇄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 『기록물관리 업무매뉴얼』 발간



충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기록물관리 업무 매뉴얼

충남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기록물관리 기준 정립,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례중심의 '기록물관리 업무매뉴얼'을 자체 발간·보급했다.

이번에 발간한 업무매뉴얼은 행정기관용과 학교용으로 구분해 현장맞춤형으로 제작된 것 이 특징이다. 업무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 신규임용자 등 누구든지 사례를 통해 관련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기록물관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됐다.

업무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기록물관리 업무처리절차 △유형별 기록물관리 방법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기록물 관리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매뉴얼 발간으로 교육행정 일선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기록물관리가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의방 총무과장은 "적극적인 정보5공개 시대와 맞물려 기록물이 더 이상 과거의 산물이 아님을 직시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개방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종가음식 3대 요리서'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경상북도는 지역 종가문화(宗家文化) 명품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종가음식 요리서'(宗家飲食料理書)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북도가 보유한 종가음식 3대 요리서는 『음식디미방』, 『수운잡방(需雲雜方)』, 『온주법』이다.

경상북도는 종가음식 3대 요리서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올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종가음식 요리서의 유산적 가치에 대한 학술연구를 우선 진행한다. 또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고 연

News

국내 기록관리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경상북도가 보유한 중기음식 3대 요리서 가운데 하나인 『음식디미방』

구 성과를 정리해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등재 신청을 준비한 후 하반기에 문화재청에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이 2016년 상반기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하면 2017년 상반기에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음식디미방』은 약 340년 전 장계향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다. 조선 중엽과 말엽 경상도 지방의 가정에서 실제 만든 면병류, 어육류, 주류, 초류 등 146가지의 손님 접대용 요리비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수운잡방』은 16세기 안동 사대부인 김유가 한문으로 쓴 요리책이다. 『음식디미방』보다 100여 년 전에 발간됐으며 조선시대 양반가의 음식 문화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온주법』은 안동 의성김씨 종가에서 내려오는 44종류의 술 제조 기법을 기록한 책이다.

경상북도는 이 요리서들과 함께 1800년대 말의 문헌으로 상주지방 반가의 조리책을 필사한 『시의전서』도 등재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요리서가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웰빙음식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한식의 세계화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충청남도, 사료가치 높은 도정 기록물 수집

충청남도는 도정 관련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수집·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 관련 수집 대상 기록물은 도정의 역사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종이문서와 사진·필름 등 시청각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이다.

수집은 오는 5월 말까지 전·현직 도지사와 향토사학자, 사진작가, 지역 언론사 등의 자문 및 방문을 통한 수집에서부터 각급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에까지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실시된다.

기록물 수집방법은 기록물의 소장자와 협의해 도에 기증, 복제, 대여, 위탁보존 등의 방법을 권유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 도가 구입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 문서고를 활용한 도정 관련 주요 기록물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해 후대에 전승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해서는 도정기록물 전시관을 설치하거나 각종 행사를 통해 전시·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학진흥원, ‘유교책판’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후보 확정

한국국학진흥원 유교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후보의 하나로 확정됐다.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는 2월 12일 한국국학진흥원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유교책판 전체(718종 6만4천226장)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후보의 하나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교책판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술을 책으로 찍어내기 위해 나무에 새긴 기록물로 유교문화 대표 기록유산의 하나이다. 특히 유학 집단의 사회적 공론을 거쳐 후손이나 후학이 자발적으로 경



한국국학진흥원 목판 수창고

비를 모아 인쇄를 위해 목판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주요 등재기준인 진정성, 독창성, 세계적 중요성이 뛰어나 등재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등재후보로 확정된 ‘KBS01산가족을 찾습니다’와 함께 유교책판의 등재신청서를 3월 말까지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등재는 2015년 6월경 세계기록문화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 동안 한국국학진흥원은 2001년부터 전통 기록 자료들의 수집 보존에 노력해 현재 6만 5천여 장의 조선시대 유교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이미 2005년에 목판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자동통풍시스템, 자동 항온항습시설, 가스식 자동 소방 시스템, 출입 통제 및 도난 방지 시스템 등 첨단 시설을 갖춘 목판 전용 수장 시설로 장판각을 준공했다.

특히 2009년 국내 유일의 목판연구소를 설립, 국내 소재 목판의 조사 수집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목판 관련 제반 연구보존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각 문종과 유림단체에서 보관 중인 목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조선목판의 휴먼네트워크’ 사업을 기획 중이다. 이미 연차사업으로 마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결과는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 목판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유교책판은 전체 305개 문종에서 기탁한 718종 6만4천226장이다. 이에 따라 안동은 2010년 등재된 하회마을을 비롯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병산서원과 도산서원, 봉정사 등 민속문화와 유교문화, 불교문화를 세계유산과 세계기록문화유산 보유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문화재청, 전국 사찰 소장 조선시대 목판 일제 조사



서울 봉은사의 목판



안동 봉정사의 목판

문화재청은 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전국 110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목판 2만 7천여 점에 관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목판의 인문학적 조사, 판종별 목록화, 수종 분석, 실측, 소장처 보존관리 현황조사, 그리고 디지털·적외선 촬영 등이다. 사찰 소장 목판은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등 불교 주요 경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대부의 문집과 족보 등을 판각했던 경판도 일부 포함된다. 현재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은 대부분 16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각 판본에는 고려대장경 이후 사찰로 전수되어 온 조선시대 인쇄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한편,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전국 2천 9백여 사찰에 비장(秘藏)되어 온 불상, 불화, 전적, 공예 등의 불교문화재 16만 1천여 점이 조사 완료되었다. 이 자료에 근거해 중요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 방안과 도난 방지방안을 모색하여,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을 보물 제1544호로 지정하는 등 80여 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사찰 소장 목판의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 결과물이 조선시대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가상연구실 및 디지털 서고 오픈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도서관&박물관 측과 공동으로 가상 연구실 및 디지털 서고인 '프랭클린(FRANKLIN)'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프랭클린 프로젝트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공동으로 이루어졌고, 루스벨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마이크로 필름의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로써 전 세계 이용자들은 프랭클린 가상 연구실을 통해 경제공황 및 뉴딜, 2차 세계대전 중 국가 중대사 결정 관련 문서 등과 같은 루즈벨트 도서관의 디지털화된 소장기록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35만 페이지의 기록물과 2천장에 달하는 역사 사진들이 디지털화 되어있다. 향후 루즈벨트 도서관은 지속적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신규 기록은 프랭클린 가상 연구실의 메인 화면에 공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

호주-뉴질랜드 국가기록원, 앤잭(Anzac) 홈페이지 제작



호주,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양국의 연합군대, 앤잭(Anzac)과 관련된 역사적 중요 기록물의 활용을 위해 홈페이지(Discovering Anzacs)를 공동 구축한다고 밝혔다.

향후 웹사이트를 통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합군의 프로필(병적기록부와 연계)을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홈페이지는 역사익식 고취 및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해 대국민 참여 유도형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소장한 1차 세계대전 관련 사진, 가족들의 이야기 등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영국|

영국 국가기록원, 『1차 세계대전 징집 항소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개시



영국 국가기록원(TNA)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들섹스 주(Middlesex, 영국의 옛 州)의 징집 면제 항소를 요청한 8천여 명의 디지털화된 기록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록물은 전쟁이 전개됨에 따라 징집에 대한 변화하는 국가 정책을 반영하는 행정보고서뿐만 아니라 8천명이 넘는 사건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가족, 사업,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새로운 과거사를 탐구할 수 있으며, 전쟁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북경군부대당안관, 당안지식 하부조직 전파

북경군부대당안관은 관내 병사들의 당안의식 강화를 위해, 소속부대 당안 담당자의 능력과 소질을 향상시키고, 문건 자료의 회수율을 제고시키고 있다. 신년 초에 북경군부대당안관에서는 기초연구 조사지원에서 전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참조하여 당안지식 홍보역량을 확대하였다.

북경군부대당안관은 홈페이지를 당안관 성격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당안 기초지식, 당안규정 이용, 당안 이용사례 등 특설기고란, 여행자를 위한 편리한 당안지식 습득, 당안 이용의 이해, 이용법규 숙달, 군용핸드폰 문자메시지 플랫폼 이용, 당안지식 및 관련 법률·법규의 적시 홍보, 또한 각급 기관과 간부들로 하여금 문건자료를 잘 보존하게 하고, 즉시 교부 및 회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관내 병사들의 군무학습에 대한 당안업무 영향을 확대하였다. 지식 집적도, 흥미성, 실용성, 지도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 수립, 당안 이야기, 당안 명인, 지도자 당안토론, 고급의 당안기관 변천 등의 내용을 한 권의 당안지식 홍보책자에 담아 이를 전군부대 및 17개 기관, 학교, 여행사 단체 등의 보안당안실에 배포하여 병사들의 당안 이용 업무 중 우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http://www.saac.gov.cn/news/2014-02/14/content_33763.htm

국가당안국 공개목록 행정심사비준사항 선포



지난 2월 18일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국가당안국은 공개목록 행정비준사항을 선포하였다. 행정허가 4항과 비행정허가 2항을 포함한 비준의 항목 명칭, 항목 코드, 설정 근거, 비준대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무원이 행정비준 제도 개혁을 재개한 이래 국가당안국은 국무원의 통일부서에 의해 행정비준 제도 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에 선포된 행정비준 사항의 공개목록에 포함된 행정허가 4항-집단이나 개인소유, 기타 국가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의 매매 및 양도-은 이렇게 구별된다.

국가와 사회의 보존가치가 있는 비밀 당안은 반드시 심사비준을 해야 하는데 심사비준 대상은 당안 소유자이다. 국가소유 당안의 복제건의 증명, 교환, 판매는 심사비준을 해야 하고, 심사비준 대상은 각급 당안관 및 기관, 단체, 기업 사업부서와 기타 조직이고 국가 2급 당안 및 복제건의 휴대, 운반, 우송 및 출국의 심사비준의 심사비준

대상은 각급 국가당안관이다.

사회개방당안의 심사비준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성급 이상 당안관이 심사비준 대상이 된다. 비행정허가 심사비준으로 구별되는 2항은 수집 당안 범위 세칙과 업무방안에 대한 심사비준 대상은 성급 이상 국가당안관이다.

문건자료 분류 보관 범위와 당안보관 기한표의 심사비준 대상기관으로는 기관, 인민단체, 기업 등이다. 행정허가와 비행정허가 심사비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 실시방법>, <각급각류당안관 수집 당안 범위의 규정>, <기관 문건자료 분류보관 범위와 문건당안 보관기한 규정>과 <기업문건자료 분류보관 범위와 당안보관기한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http://www.saac.gov.cn/news/2014-02/21/content_34145.htm



|일본|

각본 아카이브즈 일반공개와 관련 심포지움



2014년 2월 11일 도쿄대에서 『각본 아카이브즈 일반공개에 앞서-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각본 아카이브즈의 일반 공개 개시 전에 이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을 살펴보고 유사한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 “문화 관련 자료 아카이브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의 전망과 디지털 아카이브즈의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과제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도 참여하여, 각본뿐만 아니라 영상 아카이브즈 또한 시야에 넣고 향후 노력에 방향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아카이브학회, 『지역의 학교자료와 아카이브』 연구회 개최



일본아카이브학회에서는 『지역의 학교자료와 아카이브즈』라는 주제로 2014년 2월 15일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성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칸사이(關西)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연구회였다. 발표자와 발표내용은 <http://www.jsas.info/modules/20140215/20140215.jpg>에서 살펴볼 수 있다.

ARMA International 도쿄지부, 기록관리학회 공동 특별 세미나 개최

ARMA International 도쿄지부, 기록관리학회 공동 특별 세미나가 『미국의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일본의 정보공개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2014년 2월 27일에 주오우(中央) 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2013년 말부터 논쟁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특정비밀보호법 제정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 법률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문서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기록정보관리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법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ARMA International 도쿄지부와 기록관리학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돌아보고 정책입안을 위한 시민참가 및 공적기관정보의 시민 접근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메이지(明治)대학 법학부 특임교수인 로렌스 레베타 교수를 초청하여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법 상의 특정비밀의 취급, 공개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 국립기록청의 역할, 그리고 일본 정보공개법과 공문서관리제도의 과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영미 소식 | 서정호(표준협력과)
중국 소식 | 최희진(기록편찬문화과)
일본 소식 | 이윤경(공개서비스과)

Book 새로 나온 책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기록원 발간 도서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 I)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판결문(2,673권)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경기, 강원, 충청도 지역의 3·1운동 판결문을 선별한 것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수록하였다. 그간 판결문 원문은 한문과 일본어로 쓰여져 일반인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각 지역 3·1운동 연구와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일반 도서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남권희 외 | 글항아리 | 2014-02-24 | 반양장본 | 400쪽 | 221×162mm | 765g
ISBN(13) : 9788967350963

목판과 조선시대 사회문화사를 연구한 책이다. 문헌정보학, 국어국문학, 역사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한국 목판본 간행의 역할과 기능, 문집 간행과정 이해의 중요성, 학서 출판의 차별적 지점, 책판 연구의 의의와 속성, 책판 관리의 기록과 체계, 목판이 선인의 세계관을 바꾸다 등을 다루고 있다.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김귀옥 | 한울 | 2014-02-27 | 양장본 | 264쪽 | 223×152mm | 475g
ISBN(13) : 9788946056572

이 책은 20년 가까이 구술사를 연구해온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결과물이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에서 저자는 구술사 연구의 특징을 짚어보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구술사 연구방법론을 설명하며, 구술사 연구의 발전과 대중화의 가능성을 다양한 방향으로 모색한다.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강덕상 외 | 동북아역사재단 | 2013-12-31 | 416쪽 | 223×152mm | 705g
ISBN(13) : 9788990062505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은 관동대지진 90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의 결과물을 수정·보완하여 엮은 책이다.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과거사의 실상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 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도면회 | 푸른역사 | 2014-02-02 | 반양장본 | 599쪽 | 223×152mm | 830g
ISBN(13) : 9791156120063

정지사회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근대 형사재판제도를 다루었다. 식민지화 전후 시기 한국의 사법제도와 정치, 사회상을 추적해온 저자는 형사재판제도의 변화를 법학, 법제사적 분석에 한정하지 않고 개화기 한국의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을 중심에 놓고 분석했다. 이로써 식민지화의 원인을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외적요인 외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 찾는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다.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강명관 | 천년의상상 | 2014-01-06 | 반양장본 | 548쪽 | 223×152mm | 890g
ISBN(13) : 9788996870661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각종 문집과 일기류, 서지학 자료 등을 추적하여 조선의 책이 조선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고, 어떤 문화를 발명해 왔는지 살펴본다. 가령, 조선시대 책의 인쇄와 유통 양상은 어떠했는지, 책값은 지식의 확산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중요한 서적의 탄생과 소멸은 어떠했는지 등 책과 지식생산의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망라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읽어낸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요시미 요시아키 | 남상구(울긴이) | 역사공간 | 반양장본 | 112쪽 | 190×130mm | 140g | ISBN(13) : 9788998205232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다섯 가지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 답을 제공한 것으로 20년에 걸친 '위안부' 문제 연구 성과를 모두 담았다. 다섯 개의 사실을 주장한 광고에 일본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밝히고자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자료, 증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논하고 있다.